

25.05.27.(화)

즉시 배포

Tel : 02-6788-3201, 3631 / Fax : 02-6788-3629

e-mail : minjooeuljiro@gmail.com

민주당 중앙선대위 잘사니즘위원회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식 진행

5/26(월) 17:00,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지지선언식 진행

2025년 5월 26일(월) 오후 5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이하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는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잘사니즘위원회 산하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민병덕)와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식을 진행했다.

이번 지지선언식은 건설노동 현장의 고용 불안과 불법·위법 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적 해법을 촉구하고, 이에 대한 건설노동자 당사자의 목소리를 담은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청취하는 자리였다.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는 현재 건설노동자들이 심각한 실업 상태에 내몰리고 있으며, 고용 불안과 열악한 노동환경이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번째 실천과제로 ‘서울경기지역 건설노동자 고용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회’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이 협의회는 노동자와 정부, 국회가 함께 참여하는 정례적이고 공식적인 논의 기구로, 지역 내 건설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협력 플랫폼으로 기능하게 된다. 특히,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건설노동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당사자 중심의 운영체제로 설계되어야 하며, 선언적 수준을 넘는 실행력 있는 구조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두 번째 정책 제안으로는, 구리 갈매지구, 남양주 왕숙지구, 진접지구, 고양 창릉지구 등 3기 신도시 주요 공사현장에 대한 합동 감시단 구성이 제시되었다.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는 “지금까지 정부기관과 지자체는 건설사로부터 서류를 제출받는 형식적인 방식에 머물러 왔다” 며, “이러한 방식으로는 현장의 불법·편법을 제대로 찾아내고 해결할 수 없다” 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건설현장의 구조와 실태를 누구보다 잘 아는 건설노조가 참여하는 실질적 감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앞서 언급된 3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노·정 합동 협력기구’ 를 시범적으로 구성해 실태조사와 감독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서울시 관급공사 현장에 대한 합동조사 활동을 통해 공공사업부터 법과 원칙이 철저히 준수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는 “현장의 진짜 문제는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이 가장 잘 안다” 며, “더 이상 선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실천을 위한 구조적 협의체가 필요하다” 고 거듭 강조했다.

민병덕 위원장은 “임금이 밀려도, 하도급을 거쳐도, 안전장비 하나 없이 매달려도 ‘일감만 있으면 된다’ 며 묵묵히 일하던 분들이 이제는 현장에서 밀려나고 있다” 고 말하며, “이제는 그분들이 더 이상 견디지 않아도 되는 정치를 만들어야 한다” 고 밝혔다. 이어 “현재의 건설현장 문제는 노동자나 중소 건설업체의 잘못이 아닌 진짜 ‘갑’과 싸워야 할 문제이며, 현장에서 상생하면서 구조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 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오늘 지지선언식을 통해 제시된 실천 과제들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고 뜻을 모았다. 간담회 이후 참석자들은 이재명 대선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히고, 지지선언을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잘사니즘위원회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